



관계부처합동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0. 28.(금) 07:30	배포 일시	2022. 10. 27.(목) 10:00
담당 부서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홍인기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이승욱 (044-201-2232)

정부지원 확대하여 전년보다 김장부담 확 낮춘다!

-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계부처 합동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발표 -
- 전국 마트·시장 820개소에서 김장채소 할인판매 온누리상품권 현금행사 등 추진 -
- 고추·마늘·양파 비축물량 1만 톤, 천일염 500톤 시장 공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올해 김장철(11~12월) 주요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의 김장재료 구매비용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해와 다르게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 지원을 강화하여 소비자 체감 물가부담을 적극 낮추기로 하였다. “이번 김장, 정부도 함께 합니다”를 표어로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 동안 관계 기관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과 온라인몰의 전국 820개소에서 농산물 할인 판매(11.3.~12.7.)를 진행한다. 김장채소류를 20% 할인 판매하고, 전통시장은 30%까지 할인 판매하기로 하였다. 할인 한도는 최대 3만 원까지 높이기로 하였다.

- * 할인한도(1인당): 2만 원 20% 할인(대형·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3만 원 20% 할인(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3만 원 30% 할인(전통시장)

농협에서도 김장철 기간 동안 특별판매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800여 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장채소류를 품목별로 5~40% 할인 판매(11.3.~12.7.)하기로 하였다. 온라인에서의 소비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농협몰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할인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장재료인 천일염과 새우젓, 멸치액젓을 ‘코리아수산물페스타(10.31~11.16일)’의 할인 품목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또 15개 수산전통시장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하면 일부 금액(최대 30%, 1인 2만 원 한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11.11.~11.20.)도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김장철 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구매한도는 종류별로 최대 30만 원을 증액하여 1백만 원까지 확대(카드형 70→100만 원, 지류형 50→70만 원, 모바일 70→100만 원)하고,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장재료는 아니지만 보쌈 등으로 김장철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와 굴도 할인행사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돼지고기의 경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최대 30%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김장재료 공급과 할인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반」을 1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해수부·중소벤처기업부·농협 등이 참여하여 담당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 점검과 소비자 부담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및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는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대파, 쪽파, 양파, 생강, 잣, 미나리, 배, 굵은 소금, 새우젓, 멸치액젓’의 14개 품목이다.

김장철 기간 김장재료별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장의 주재료로서 비중이 큰 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무는 전년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배추를 절이는 데 쓰이는 굵은 소금(천일염)의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 (배추) 김장철에는 10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가을배추가 사용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하고 생육이 양호하여 생산량은 전년(114만 7천 톤)보다 10.4% 증가한 126만 7천 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육기인 9월 강수 부족으로 생육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11월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예상된다. 김장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 (무) 김장철에 사용되는 가을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9% 증가하였으나, 작황은 전년보다 약간 부진하여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38만 5천 톤 수준으로 전망한다. 배추와 마찬가지로 수확은 다소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공급은 11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천일염) 이른 장마로 일조량이 감소하고, 평균기온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생산량은 전년보다 7.1% 감소한 26만 톤 수준으로 전망한다.

그밖에 김장 양념 등 부재료로 쓰이는 품목 중에서 고춧가루와 잣은 전년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쪽파·배·새우젓·멸치액젓은 전년보다 공급이 증가하고, 마늘·대파·양파·생강·미나리는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김장재료별 수급전망에 기초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을 폭넓게 지원하여 소비자의 김장 장바구니 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로 하였다.

우선, 마늘·고추·양파는 정부 비축물량 1만 톤을 김장철 시작 시기인 11월부터 시장에 공급하여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마늘은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를 조건으로 비축물량 5천 톤을 깎마늘로 가공하여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고추는 건고추 비축물량 1천 4백 톤을 매주 5백 톤 내외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양파는 비축물량 3천 6백 톤을 매주 240~500톤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소금(천일염)도 비축물량 5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 등에게 최대 3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주재료인 배추·무의 경우는 생산량이 전년 수준이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병해충 방제 등 농가 기술지도와 산지 작황 점검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한편 김장은 늦가을 또는 초겨울에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 1년간 먹을 김치를 담그는 행사이다. 비슷한 시기에 다수 사람들이 김장재료를 구입한다는 점에서 김장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편이다. 김장은 대체로 강원·경기지역에서 11월 상순부터 시작하여 충청도와 영호남권으로 확대되며 12월 하순에 마무리된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기간 주요 할인행사와 가격 전망, 구매처 등의 정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kamis.or.kr)’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은 각 가정에서 연중 즐겨 먹는 김치를 가족이나 친지들이 함께 모여 담그는 공동체 행사로서 우리나라의 특색있는 고유문화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서 김장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김장 개요

2. 김장재료 품목 및 비중 변경

담당 부서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홍인기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이승욱 (044-201-2232)
<수산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윤이 (044-200-5447)
<온누리 상품권>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책임자	과 장	김윤우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윤상준 (044-204-7895)

- (김장 의의) 늦가을 또는 초겨울에 한꺼번에 많은 김치를 담그는 일을 말하며, 김장문화는 2013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 (김장시기) 강원·경기부터 11월 상순 시작되어 충청·영호남권으로 확대, 12월 하순 마무리
 - '22년은 11월 중순 ~ 12월 상순 기간 김장의향이 전체의 75%를 차지 (2022년 소비자 김장의향 조사(622명, 10.17~19.)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장규모) 4인가구 기준 '22년은 21.8포기로 전·평년비 감소('21년 22.1포기, 평년 22.6포기)
 - '22년 가구별 김장규모는 '전년과 비슷(55.6%), '전년보다 줄이겠다'(30.2%), '전년보다 늘리겠다'(14.2%) 순이며, '전년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은 비용부담(34.6%)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
- (주요 김장재료)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대파, 쪽파, 양파, 생강, 잣, 미나리, 배, 굵은 소금, 새우젓, 멸치액젓의 14개 품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기준)

붙임2

김장재료 품목 및 비중 변경

- 2009년부터 배추·무·굴 등 13개 품목을 김장재료로 선정하여 조사(aT)
- 2009년 이후 식습관 변화(저염식 선호)와 보관방식 변경(김치냉장고 보편화) 등을 반영하여 2022년부터 주요 김장재료 조사 품목·비중 개선*

* 세계김치연구소, 김치협회 등 전문가 자문(2022년 10월 5일) 거쳐 개선안 마련

- 속재료인 배·양파 추가 및 단기 소비용 굴 제외, 최근 저염식 선호 등 반영하여 양념재료의 배합비중 조정*

* (비중 확대) 고춧가루, 깐마늘, 생강 (비중 축소) 소금, 새우젓, 대파, 쪽파, 갓, 미나리

품목	기존	개선	조정 사유
배추	20포기	20포기	4인가구 기준 평균 김장규모(평년 22.6포기) 고려하여 현행 유지
무	10개	5개	세계김치연구소 표준 레시피 김치소 배합 비율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조정
고춧가루	1.86kg	2kg	"
깐마늘	1.2kg	1.3kg	"
대파	2kg	0.7kg	"
쪽파	2.4kg	0.7kg	"
양파	-	0.8kg	대부분 가정에서 양념에 사용(갈아서 첨가)하는 점 고려
생강	0.12kg	0.3kg	세계김치연구소 표준 레시피 김치소 배합 비율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조정
갓	2.6kg	1.4kg	"
미나리	2kg	0.4kg	"
배	-	1.8kg	대부분 가정에서 양념에 사용(갈아서 첨가)하는 점 고려
굴	2kg	-	저장용 김치 재료로 부적합
굵은소금	8kg	6kg	김치냉장고 보유 및 저염식 선호로 사용량 감소 반영
새우젓	1kg	0.8kg	"
멸치액젓	1.2kg	1.2kg	전문가 현행 유지 의견